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 군인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 호 학 전 공

장 은 희

군인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용 순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 년 2 월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 호 학 전 공

장 은 희

장은회의 간호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05년 12월 22일

## 감사의 글

늦게 시작한 배움의 어려움과 함께 지난 2 년 동안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은 몇 배로 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2 년의 시간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극히 개인적인 성 관련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신 이름 모를 모든 설문지 응답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상하고 세심하게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셨던 김용순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뱀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져서 힘이 되었던 현명선교수님과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 통계학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 해주신 방경숙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밑거름을 듬뿍 주신 박지원교수님, 유문숙교수님과 유혜라교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Endres 소령, Dr. Fernald 그리고 백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염려해 주셨던 시아버님과 친정어머니, 그리고 같은 간호사여서 더욱더 도움이 됐던 언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시동생, 무엇보다 가장 큰 지지와 끈임 없는 격려를 해준 남편, 말없이 지켜보아 준 사랑하는 나래와 한이....

보잘것 없는 작은 논문이지만 이것은 당신들의 것 입니다.

2005 년 12 월 장은희

<국문요약>

## 군인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한국남자군인들과 미국남자군인들을 대상으로 성태도와 성행동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청년들의 성실태를 재조명해 보고 앞으로 청소년 및 청년들의 성교육과 성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였다. 한국군인은 S시에 위치한 기차역 두 곳과 버스터미널 세 곳을 통과하는 군인들 중 165명을 대상으로, 주한미국군인은 P시와 D시에 위치한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중 총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태도에 관한 연구도구는 Valois 등(1980)이 제작한 도구로, 성행동에 관한 도구는 장휘숙(1995)이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1.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t-test, ANOVA 그리고  $\chi^2$  - test 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군인의 성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서 평균, 자위행위  $3.02 \pm .53$ , 피임  $4.01 \pm .71$ , 혼전성교  $3.01 \pm .74$ , 낙태  $2.55 \pm .77$ , 동성애  $2.40 \pm .82$  의 결과를 보였고, 주한미국군인의 성태도 점수는 자위행위  $3.53 \pm .66$ , 피임  $4.15 \pm .70$ , 혼전성교  $3.66 \pm .85$ , 낙태  $2.84 \pm 1.08$ , 동성애  $3.03 \pm 1.01$  의 결과를 보였다.

2. 한국군인의 성경험 비율 중, 키스와 포옹의 경험 비율은 123(78.3%), 자위행위 132(84.1%), 동성애 3(1.9%), 혼전 성교 93(59.2%)의 결과를 보였다. 주한미국군인은 키스와 포옹 134(89.3%), 자위행위 145(96.7%), 동성애 5(3.3%), 혼전성교 132(88.0%)의 결과를 보였다. 혼전성교로 인한 상대방의 낙태경험은 한국군인은 18(19.0%), 미국군인은 15(11.0%)의 결과를 보였다.
  
3. 최초 성경험 시기의 평균 나이는 한국군인과 미국군인의 순서로 키스와 포옹의 경우 17.1 세와 12.7 세, 자위행위는 15.2 세와 12.9 세, 혼전성교는 17.8 세와 15.2 세, 동성애는 19 세는 8 세, 혼전성교로 인한 상대방의 낙태경험의 최초경험시기는 17 세와 15 세의 결과를 나타냈다.
  
4. 주한미국군인은 한국군인들에 비해 자위행위( $t=7.32$ ,  $p=.000$ ), 혼전성교( $t=7.17$ ,  $p=.000$ ), 낙태( $t=2.71$ ,  $p=.007$ ), 동성애( $t=5.90$ ,  $p=.000$ )의 성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피임에 대한 태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1.69$ ,  $p=.090$ ).  
 주한미국군인은 한국군인들 보다 키스와 포옹( $\chi^2=6.795$ ,  $p=.009$ ), 자위행위( $\chi^2=13.791$ ,  $p=.000$ ), 혼전성교( $\chi^2=32.422$ ,  $p=.000$ )의 경험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동성애의 경험비율은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612$ ,  $p=.493$ ).
  
5. 한국군인들은 교육 정도가 낮은 경우 혼전성교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t=2.45$ ,  $p=.015$ ). 미국군인들은 종교가 없는 경우 혼전성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t=-3.24$ ,  $p=.001$ ). 두

그룹 모두 계급에 따른 혼전성교 태도와 경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교 유무에 따른 낙태의 경험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볼 때 주한미국군인들이 한국군인들에 비해 성태도에 대해 좀더 긍정적이고 허용적이었으며, 성행동이 활발하며, 시작되는 시기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군인들의 성태도가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행동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혼전성교의 시기도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한국청년들과 미국청년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시차를 두고 군인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혼전성교의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것을 감안하여, 중학교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필요하고 성실태에 부합되는 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흥미로운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차 례

국문요약.....	i
차 례 .....	iv
표 차례 .....	v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3
3. 용어의 정의 .....	4
4. 연구의 제한점 .....	5
II. 이론적 배경 .....	6
1. 청년기의 특징 .....	6
2. 성태도와 연구동향 .....	9
3. 성행동과 연구동향 .....	14
III. 연구방법 .....	19
1. 연구설계 .....	19
2. 연구대상 .....	19
3. 연구도구 .....	19
4. 연구진행절차 .....	21
5. 자료분석방법 .....	21

IV. 연구결과 .....	23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23
2. 성태도 .....	25
3. 성행동 .....	30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와 성행동의 차이 .....	34
V. 논의 .....	38
VI. 결론 및 제언 .....	45
참고문헌 .....	49
부    록 .....	55
ABSTRACT .....	67

## 표 차 례

< 표 1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	24
< 표 2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성태도 차이 검정 .....	25
< 표 2-1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자위행위의 태도 차이 검정...	26
< 표 2-2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피임에 대한 태도 차이 검정 ...	27
< 표 2-3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혼전성교 태도 차이 검정 .....	28
< 표 2-4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낙태에 관한 태도 차이 검정 ...	29
< 표 2-5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동성애에 관한 태도 차이 검정..	30
< 표 3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성경험 유무 .....	31
< 표 3-1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최초 성경험 시기 .....	32
< 표 3-2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혼전성교 상대 수 .....	33

< 표 3-3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성교 결과로 인한 상대자의 낙태 경험 유무 .....	34
< 표 4-1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혼전성교태도 차이 검정 .....	35
< 표 4-2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계급에 따른 이성간의 혼전성교 경험 유무 차이 검정.....	36
< 표 4-3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종교 유무에 따른 낙태 경험 차이 검정 .....	3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에서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성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성이란 주제는 은밀하고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아울러 한국 사회의 성문화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도덕주의의 성문화, 남성 위주의 성문화, 이성애(heterosexuality) 중심적인 성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기 시작했다. 급속한 산업화 · 도시화로 인해, 성문화는 성에 대해서 사회적 금기처럼 취급하여 온 전통적 성 윤리관을 깨뜨리는 서구의 개방 풍조를 보이고 있어 무분별한 성접촉에 따라 점차 커다란 사회 문화로 대두되게 되었다(문인옥, 1997). 대중 매체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업적이고 도구화된 성에 관한 정보는 미처 주체적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무책임한 성행동을 야기하고 있고 성태도와 성행동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장휘숙, 1999; 고연숙, 2001).

모든 인간이 성적 존재이지만 청년기(16~25 세)의 성이 특별히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극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Erikson 의 인간발달이론에 의하면 이 청년기는 특히 신체 발달 중 생식 능력의 발달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키지 않으면 고립의 감정을 겪는 시기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대학 입학 이전에는 공부와

진학, 특히 입시 문제 등으로 억압과 혼란을 경험(조명한, 1993)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입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이성과의 교제를 시작하고 성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다.

1986년 WHO의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난 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6가지 문제들은 첫째, 성행위의 경험 연령이 낮아지며 둘째, 적절한 피임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셋째, 성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넷째, 원치 않는 임신이 늘고 있으며 다섯째, 인공임신중절이 늘고 있으며 여섯째는 원치 않는 아기의 출산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20대 초반에 이에 관한 지식 및 의식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때 이 연령 군에 관한 조사는 필수적이다(문인옥, 1997).

또한 장휘숙(1995)의 연구에서 보면 군필자가 군미필자 보다 유의하게 성교 경험비율이 높고, 성한기(1996)와 고연숙(2001)의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들이 저학년 때 보다 고학년이 되면서 성교 경험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남자 대학생들이 대부분 1·2학년 때 군대에 가게 된다고 생각할 때,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의 성실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군필자와 군미필자들의 성실태를 연구한 경우는 좀 있으나, 군복무 중에 있는 군인들에 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성실태 연구는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거의 모든 성 관련 연구에서 ‘전 세계적인 성의 자유화 물결’(고연숙, 2001; 유근옥, 2002), ‘전통적 성윤리관을 깨뜨리는 서구의 개방풍조’(문인옥, 1997), ‘외래로부터 들어온 성개방 풍조’(정윤만, 2002)등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성에 대한 미국 청소년들의 태도는(특히 혼전성교에 대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걸쳐 보다 더 자유주의적으로 변화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 다시 약간 보수주의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주장한다

(Chilman, 1986; 장휘숙인용, 1995). 1990 년대에 들면서 학교에서 AIDS 를 포함한 성병교육의 강화로 청소년들의 혼전성교비율과 혼전성교 상대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CDC; 미국 질병통제센터). 과연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성실태는 어떻게 서양을 대표하는 미국, 그 중에서 성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20 대의 미혼 남자들 중의 일부인 미국 군인들과 한국 군인들의 성실태는 어떠할까? 한국군인들의 성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주한미국군인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을 비교해 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실태 현주소를 알 수 있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성실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성실태나 성교육등을 본보기로 여러 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성병, 조기임신, 낙태등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것이다. 이 두 그룹의 성태도와 경험한 성행동을 파악하므로써 추후 청소년들과 대학생 연령층의 청년들에게 성교육이나 성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 하였다.

##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남자 군인들과 미국 남자 군인들을 대상으로 성태도와 성행동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므로써,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실태를 재조명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 군인들과 미국 군인들의 성태도를 파악한다.
- 2) 한국 군인들과 미국 군인들이 경험한 성행동을 파악한다.

- 3) 한국 군인들과 미국 군인들 간에 성태도와 성행동에는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와 성행동의 차이를 분석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성태도

이론적 정의 : 성태도는 성에 대한 가치나 현상 및 남녀간의 생리적 관습과 행동에 대해 반응하는 경험의 결과로서 이에 대한 경향을 의미한다 (남영옥, 2003).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Valois 등(1980)이 미국대학생들에게 사용했던 도구 중 한국군인과 미국군인들에 모두 적용 가능한 문항들을 발췌한 것으로,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긍정적, 허용적인 성태도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 내용으로는 자위 행위, 혼전 성교, 동성애, 피임, 낙태 등에 대한 개인의 경향과 선호의 방식을 뜻한다.

#### 2) 성행동

이론적 정의 : 성행동은 자위행위, 이성교제, 신체접촉이나 키스등과 같은 간접적인 성관련 경험이나 성관계와 같은 직접적인 경험이다(남영옥, 2003).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성행동이란 키스와 포옹, 자위 행위, 혼전 성교, 동성애 등의 경험 여부를 말한다. 또한 성행동은 아니지만 성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낙태, 콘돔사용 그리고 성병 경험 등도 포함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 1) 연구 대상의 제한 점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이 미국군인의 경우 P 도시와 D 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인부대에서 편의 추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인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한국군인의 경우에도 S 시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통과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군인들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군인과 미국군인의 일반적 특성이 동질 하지 못한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 2) 연구도구의 제한 점

본 연구의 성태도에 대한 설문지는 미국에서는 표준화된 자료이지만,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부만을 사용하였고, 또한 한국에서는 표준화되지 않은 도구라는 제한 점이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청년기의 특징, 성태도, 그리고 성행동에 관한 연구동향을 고찰하였다.

### 1. 청년기의 특징

청소년기(adolescence)란 용어는 '성장하다' 또는 '성숙해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동사 *adolescere* 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시기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발달이 이루어지는 전환의 시기로서 인생의 독특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청소년 기본법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청소년은 '9 세 이상 24 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의 범위는 학자에 따라, 발달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김종서등의 연구(김애순등, 1997 에 인용됨)에서는 청소년기가 청소년 전기(12~18, 19 세)와 청소년 후기(19~24, 25 세)로 구분되고 있다. 이 청소년 후기(late adolescence)를 청년기(youth)나 성인초기 전환기(early adult transition)라 부르기도 한다.

현대에는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청년기가 점점 연장되어 그 기간이 매우 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인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심리적, 경제적 독립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고등 교육으로 인하여 청년기도 길게 연장된다. 문화에 따라서 청년기는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으며 심지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의미는 비록 청년기가 일반적 발달 단계의 일부라 하더라도 사회 문화적 고려나 사회·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

지 않고서는 청년과 청년기의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기 자체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연장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청소년의 수는 인구의 전반적 감소 추세 때문에 제 3 세계의 몇몇 나라들을 제외 하고는 과거에 비해 줄어가고 있다(통계청: 1980 년 1400 만 명, 1990 년 1357 만 명, 2000 년 1150 만 명).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인구의 수적 감소가 청소년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감소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요즘 핵가족 제도나 가족의 중심이 과거의 노년층의 어른으로부터 자녀들로 대체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실정에 대중 매체에서 보여지는 청소년 집단의 기호, 정서와 유행 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청소년의 영향력이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점차 연장되어 가는 청년기와 사회의 청년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청년들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청년기의 특징을 구분하자면 신체·생리적 특징, 정서적 특징, 그리고 인지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신체·생리적인 성숙은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여 16~18 세까지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성인 수준에 이르며, 성적으로는 생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차 성장과 이차 성장이 나타난다. 즉 청년기는 모든 신체·생리적인 성장이 완료되어서 성인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세계적으로 청소년기의 신체·생리적인 성숙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전에 비해 오늘날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영양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질 집단 간의 혼인이 신체성장을 촉진한다는 가설이다(Jensen, 1969; 김애순 등 이용, 1997). 또 다른 이유는 심리·사회적인 이유이다. 예컨대, 성 해방의 물결과 함께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빨리 시작되고, 사이버 매체, TV, 비디오, 잡지 등을 통하여 선정적인 자극이나 정보가 이른 나

이부터 입수되어 뇌하수체나 성선의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정서적 특징으로는 흔히 청년기를 '질풍노도(Sturm und Drang)'의 시기, '갈등과 방황'의 시기, 또는 '꿈과 희망의 상징'이니 이상을 추구하는 시기라고도 한다. 이러한 표현 속에는 청년들은 충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현실보다는 이상에 집착하고 환상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특징들은 신체·생리적인 변화인 성적욕망의 증가나 호르몬의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들이 있다(김애순 등, 1997).

마지막으로 인지적 발달로, 보다 어린 시기에는 내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지적 활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미 습득된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며, 지적인 동기와 태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가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청년기의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성(sexuality)에 대한 관심과 성적 실험(sexual experimentation)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기는 단순히 호기심일 수 있고, 또는 성적 자극과 방출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사랑, 애정, 친밀감, 타인의 수용을 받고 싶은 욕구가 동기가 되기도 하며, 어떤 청소년은 육체적 충족이 아닌 정서적 충족과 안정감이 성적 참여의 더 강한 동기가 된다. 또한 요즈음은 청년기의 성적인 관계에는 아무런 정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아무런 헌신 없이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관계를 추구하면서, 고의적으로 다정함, 낭만적인 감정, 또는 친밀감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정영숙 역, 2001).

## 2. 성태도와 연구동향

성에 대한 태도란 다양한 성행동에 대해 개인들이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들을 말한다. 성 혹은 성행동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자신이나 타인의 성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로 인해 동일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심리적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성에 관한 태도는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성에 관한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청년기의 성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청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성에 관한 태도는 비교적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행동도 타인들에 비해 그다지 개방적이지 않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이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최윤미 등,1998).

미국의 연구에서 보면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에서 성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연구되었다. 어린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들의 성태도가 허용적일 경우 최초 성교경험시기가 빨라지며 성교상대수도 증가했다( Smith 등, 2005).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걸쳐 피임약의 보급이나 여성해방운동 등으로 성에 대한 태도가 더 자유주의적으로 변화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약간 보수주의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 내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이나 행동이 급격하게 개방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장휘숙, 1995). 그 동안 대학생과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이성관계에서의 성행위 허용 수준이 매우 노골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다. 사랑의 전화 PC 통신 조사에 의하면, 이성관계에서 스킨십

허용범위가 포옹, 손잡기에서 성관계, 애무, 키스의 순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사랑의 전화(2001)에서는 남자는 성관계(49.4%)를, 여자는 애무(38.8%)를 가장 많이 허용하겠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성행위에 대한 허용수준은 이성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김애순, 2005).

성한기(1996)가 지적한 청년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지니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욕을 부추기는 섹스 산업이 창궐하고 있다. 퇴폐 향락업소들이 즐비하며, 사이버 매체, 음란 잡지, 비디오, CD 등을 통한 음란물이 개방물결을 타고 무차별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처럼 성적 자극과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초연함을 유지하기란 아주 힘든 일이다.

둘째, 성에 관한 허용적 규범과 억압적 규범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즉 성에 대한 자유화와 대중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한편으로, 가능하면 자제하고 억압해야 한다는 성에 관한 전통적인 사회적 규범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셋째, 청년들이 신체적으로는 성숙하나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숙하다는 점이다. 신체적 성숙에 따라 성적 충동과 이성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이를 조절해야 하는 자아는 비교적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보다는 졸속 한 판단과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넷째, 효과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출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경우보다는 저속한 잡지나 비디오, 사이버 매체, 친구 등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다섯째, 성윤리나 행동에 있어서 남성에 대한 기준과 여성에 대한 기준이 규범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소위 성에 관한 2중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1960년대 중반 피임약의 대량생산은 세계 여러 나라 젊은 이들이 과거보다 더 큰 성적 자유를 누리게 하였고 동시에 1980년대의 인종차별 반대운동과 여성의 권익보호 정책들은 오랫동안 여성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역할을 해 온 성에 대한 이중기준을 약화시켰다(장휘숙, 1995). 그러나 유교적 영향이 뿌리내린 한국에서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이 처해있는 성적환경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혼란스럽다. 더욱이 요즈음 만혼의 경향으로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금욕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 점도 청년들의 성적 갈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70~1980년대에 이르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이성교제나 혼전성교 허용율이 10년 동안에 약 15~30%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김애순, 2005). 청년들의 키스와 포옹은 요즈음은 흔히 볼 수 있는 남녀간의 애정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키스와 포옹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로 '당연히 혹은 때때로 할 수 있다'의 질문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휘숙(1995)의 연구에서는 79.75%, 고연숙(2001)의 연구에서는 88.8%를 나타내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군필자가 군미필자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남자대학생들의 자위행위에 대한 태도로도 '당연히 할 수 있다'나 '때때로 할 수 있다'가 각각 17.4%와 28.6로 46%가 긍정적인 태도(고연숙, 2001)로 1995년 장휘숙의 연구에서의 40.30%의 긍정적인 태도 보다 상승하였다. 자위행위 역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더 허용적이며 군필자의 자위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61.6%, 미필자는 60.37%를 나타냈

다(장휘숙,1995).

동성애의 이유는 다양하게 추론되고 있으나 그 이유를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한 가지 추론은 태아기의 호르몬 불균형, 즉 안드로겐의 결핍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추론은 성장배경에서 학습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동성애가 어린 시절 사회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1981년 미국에서 동성애자들 간에 에이즈가 창궐하면서 그 원인을 이들에게 돌릴 때, 동성애자들은 권익을 주장하기에 나섰고 그 후 20여 년 동안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화되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동성애자들은 분명히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극소수 층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이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거나 사회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건강성으로 볼 때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 정신장애진단 통계편람(DSM IV)에서 동성애는 비정상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에서도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규정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었다(김애순, 2005).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동성애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장휘숙의 연구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62.14%에서, 59.9%(고연숙, 2001)로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연예인들이 동성애자임을 자인하는 'coming out'이 알려지면서 변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짐작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을 혼전성교의 선행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의 네티즌(사랑의 전화, 2001)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혼남녀의 47%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전성교를 허용하겠다고 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 라면의 29% 보다 더욱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김애순, 2005).

청년기 젊은이들의 혼전성교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해 보면, 혼

전성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38.2%(공미혜, 1993), 55.99%(장휘숙, 1995), 50.2%(문인옥, 1997), 66.3%(고연숙, 2001)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에 따라 연구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급속히 혼전성교 태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임에 관한 태도를 다룬 문인옥(1997) 연구 중에는 피임법에 대한 인식을 다룬 것이 있었는데, 피임법 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된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콘돔’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남학생은 질외 사정이나 사정 조절 등의 ‘자연 피임법’, 여학생은 ‘경구 피임약’이 각각 널리 이용된다고 하였다. 콘돔의 준비는 누가 해야 하느냐의 문항에는 ‘남성이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가 남자 35.8%, 여자 57.1%, ‘남녀가 번갈아가며 준비한다’가 남자 43.4% 여자 32.5%로 나타났다. 아직도 상당수의 남녀가 콘돔의 준비를 남성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남녀가 번갈아가며 준비한다’에서 볼 때 여성들이 피임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Lanctôt 등(2001)의 연구에서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서 피임이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임신이 빈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혼전임신은 대부분 낙태로 이어지는데, 낙태에 대한 허용의 태도로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는 허용이 50.7% 반대가 28.8%, 장휘숙(1995)의 연구에서는 허용이 77.38% 반대가 22.61%, 문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절대 반대가 12.3%(남)와 22.2%(여), 고연숙(2001)의 연구에서는 허용이 82.2% 반대가 17.8%를 나타냈다. 낙태에 대해 허용하는 태도도 많이 허용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성행동과 연구동향

동일한 행동이 다른 동기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성태도와 성행동은 구별해야 한다. 즉 성에 대한 본인의 태도나 가치관과는 무관하게 성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주고 성에 대한 진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보다 혼전 성 경험자가 많다(Delamater 등, 1979; 박선영 인용, 2002).

S. Freud 는 성동기를 인간의 본능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인간의 성행동이 본능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인간의 성동기와 행동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성적대상, 정서감정, 분위기, 기대, 학습과 경험, 사회·경제적 상태 등)에 영향을 받는다. 요즘은 사이버 매체, 영화, 비디오 등의 영향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청소년, 미혼남녀들의 성행동이 활발하고 대담해지고 있다(김애순, 2005).

1990 대 이후로 전반적인 성태도의 변화와 함께 대부분의 성 관련 연구에서 보면 성행동 또한 많이 변화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키스를 경험한 비율을 보면 54.03%:남, 42.86%:여 (장휘숙,1995), 50.44%:남, 36.68%:여 (성한기, 1996), 63.4%:남, 68.0% (문인옥, 1997), 73.7%:남, 74.1%:여 (고연숙,2001) 로 나타났다. 장휘숙(199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 중 군필의 경우는 70.13%이고 미필의 경우는 38.10 으로 거의 두 배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여학생들에서 많은 변화를 볼 수 있다. 성한기(1996)와 고연숙 (2001) 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험비율은 두 배가 조금 넘는 차이로 변화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키스 경험 차이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행위는 과거에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행동으로 여기어 지다가 이

제는 하나의 정상적인 발달 현상으로 성적 긴장을 방출하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리학자나 성 치료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위행위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는 별로 없다고 한다. A. Kinsey 는 미국 남성의 92%, 여성의 62%가 자위행위를 한다고 보고 했으며, 그 후 1987 년 Hite 는 미국 여성의 82%가 자위행위를 하며 그 중 96%가 절정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김애순, 2005). 장휘숙(1995)의 연구에서 는 자위행위 경험비율이 93.46%:남, 24.06%:여로 나타나고, 군필은 96.21%, 미필은 90.73%로 나타났다. 문인옥(1997)의 연구에서 보면 자위행위 경험비율이 89.9%:남, 14.2%:여 로 나타났는데, 자위행위 후의 심리상태로 ‘후회가 되었다’와 ‘부모님이나 누가 알까봐 두려웠다’가 각각 38.6%와 35.7%로 나타났다. 고연숙(2001)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97.4% 여학생의 경우는 26.3%로 나타났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신체나 생리적인 차이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자위행위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감소와는 다르게 동성애 경험은 별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휘숙(1995)의 연구에서는 동성애 경험자가 2.52%:남, 1.12%:여 로 나타났고, 군필은 3.16%이고 미필은 1.87%를 나타냈다. 고연숙(2001)의 연구에서는 0.6%:남, 1.3%:여 로 나타났다. 성한기(1996)의 연구에서는 ‘동성에게 연애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남학생에서 6.63%, 여학생에서 21.40%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 차가 크게 나타난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교우관계 패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며, 남성의 경우에 연애감정은 성욕과 크게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여성이 느끼는 연애감정은 정서적인 것으로 성욕과의 연합강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성한기, 1996). 동성애의 감정은 주로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며 이들은 이성애(heterosexuality)

자들에 비해 우울감과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Smith 등, 2005). 대학생들 대상의 연구에서 혼전성교경험은 친구들의 혼전성교 유무에 직접,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흔히 남자들은 성경험을 갖도록 친구들로부터 압력을 받으며 성교경험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다고 느낀다고 한다(Christopher 등, 1991; 임종권 인용, 1994). 미국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인 경우에 최초의 혼전성교 경험 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Heights 등, 1998; Smith 등 인용, 2005). 그리고 저소득층의 청소년들 성교 시작 나이가 이르고, 술과 약물 등이 성교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관한 지식을 친구들에게서 얻는 청소년들이 가족들에게서 얻는 청소년에 비해 혼전성교비율이 높다. 특히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와 성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흑인 남자청소년들이 백인, 아시아계 미국인 그리고 히스패닉계의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혼전성교의 시기가 가장 빠르다고 연구되었으나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성실태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학교 주위 환경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그 예로 백인학교에 다니는 흑인청소년들의 첫 성교시작이 다른 흑인청소년에 비해 늦어진다고 연구되었다(Rosenbaum 등, 1990). 여자청소년의 경우 같은 또래의 남자친구들과 사귀는 것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남자 친구를 사귄 경우 성교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Gowen 등, 2004).

대학생들 대상인 장휘숙(1995)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36.01%가 혼전성교의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중 군필자가 57.76%이고 군미필자가 14.24%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9.07%이었다. 성한기(1996)의 연구에서 혼전성교의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27.30%, 8.63%이며, 문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각각 30.5%와 8.1%,

고연숙(2001)의 연구에서는 각각 46.8%와 14.5%를 나타냈다. 앞에서의 혼전 성태도의 급속한 변화처럼 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도 남녀학생모두에서 경험비율이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년들의 혼전성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피임방법 등에 대한 지식부족 등이나 실천이 따르지 않아 원하지 않는 임신이 증가하고 있다. 1994년의 김한경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피임 실천율은 남성의 경우 14.9%, 여성은 8.2%만이 피임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콘돔은 피임방법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성병예방의 방법으로 혼전성교 시 항상 사용을 해야 한다.

Schuster 등(1998)에 의하면 성지식은 특히 콘돔 사용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콘돔의 비사용 요인을 평가한 연구를 보면, 성교를 경험한 청소년 중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그룹은 부모와의 대화와 만남이 부족한 경우에 많았다. 위험요인이 높은 성행태는 그 부모님과의 접촉이 별로 없고 부모님의 도움이 없는 청소년에게서 나타나기 쉽다. 청소년의 위험한 성행위는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과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지 않는 행동을 발달시키지 못한 데서 유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종권, 1994). 낙태의 경험비율을 보면 장휘숙(1995)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전체의 대학생들 중 본인 혹은 상대 여성이 낙태를 한 경험비율이, 남학생의 경우는 2.76%, 여학생은 0.41%이었고, 고연숙(2001)의 연구에서는 혼전성교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 20.6%의 학생들이 임신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남학생은 18.6%이고, 여학생은 25%의 학생들이 임신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낙태의 경험 정도로는 임신을 경험한 전체 대상자가 낙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성실태 동향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년 사이 성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성행동도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청년들과 미국 청년들의 성신태의 비교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신태를 가늠해 보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들 성신태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고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장담과 성교육의 방향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년기의 미혼 남자들 중 미국군인들과 한국군인들을 대상으로 성태도와 성행동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해 질문지법을 이용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한국군인은 S 시에 위치한 군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통과하는 군인들 중 165 명을 대상으로, 미국군인은 P 시와 D 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 중 165 명을 임의표집 하여 총 33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대상자들 중 324 명의 자료가 회수되었으며 성실하게 응답한 한국군인 157 명, 주한미국군인 150 명의 자료, 총 307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가) 성태도

성태도의 도구는 Valois 등(1980)이 제작한 도구 중 미국군인과 한국

군인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내용은 자위행위 3 문항, 피임 2 문항, 동성애 4 문항, 혼전성교 4 문항 그리고 낙태에 관한 3 문항 등 총 16 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문 7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환산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질문에 대한 긍정적, 허용적인 태도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4$  이었다. 한국군인들에게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타당도의 검증은 간호학 교수로부터 받았다.

## 나) 성행동

성행동의 조사도구는 장휘숙(1995)이 제작한 도구 중 키스와 포옹, 자위행위, 동성애, 혼전성교, 낙태유무 등을 묻는 문항 다섯 문항과 그 문항들의 최초 경험 시기를 묻는 문항 등 모두 10 문항을 사용하였고, 그 외 혼전 성교 상대 수를 묻는 문항, 콘돔사용유무와 성병경험 유무 등을 묻는 문항 등을 추가하여 총 1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미국군인들에게는 영어로 번역하여 전문인(간호학 교수, 원어 민 의학박사)의 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이밖에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에는 연령, 계급, 학력, 종교 유무, 부모학력 그리고 군대복무 기간 중 성교육 경험유무 등을 물어보는 문항 등 총 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연구진행절차

한국군인에 대한 자료수집은 S 시에 위치한 기차역 두 곳과 버스 역 세 곳을 통과하는 군인들 중 165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미국군인은 용산 제 18 의무사령부의 허락을 받은 후 P 시에 위치한 미국군인 부대에서 85 명, D 시에 위치한 미국군인 부대에서 80 명 총 165 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여 조사하였으나 되도록이면 한 중대에 편중이 되지 않게 하였다. 대상자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지 조사에 참여할 것에 동의한 사람들에 한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05 년 7 월 13 일부터 8 월 3 일 까지 22 일간 이었으며, 총 330 부의 질문지를 배부하고 324 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8%이었다. 한국군인들은 대학교 학생 조사자 2 명이 자료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미국군인들은 각 중대에 배치된 위생병들이 자료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자료가 불충분한 17 부를 제외하고 한국군인 157 부, 주한 미국군인 150 부 총 307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1.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각 항목별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성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한국군인들과 미국군인들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 검증을 하였다.

- 3) 성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한국군인과 미국군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하였다.
- 4) 한국군인과 미국군인 각 그룹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성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 ANOVA 와  $\chi^2$ 검증을 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연령, 계급, 교육 정도, 종교 유무, 부 교육 정도, 모 교육 정도 그리고 군 복무 중 성교육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한국 군인 157 명, 미국 군인 150 명, 전체 307 명으로 일반적인 특성은 <표-1>과 같다. 이 연구의 대상자 연령은 18 세 이상에서 25 세 미만의 미혼 남자들이다. 한국 군인들의 평균 나이는 21.38 세였고, 미국 군인들의 평균 나이는 21.26 세였다. 계급은 병장 이하의 모든 사병들로, 양측 모두 이병들의 분포가 한국 군인은 54 명(34.4%), 미국 군인은 63 명(42.0%)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 교육 정도는 대학 휴학·졸업이상이 한국 군인 125 명(79.6%), 미국 군인 83 명(55.3%)로 한국군인들의 교육수준이 더 높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한국 군인 75 명(47.8%), 미국 군인 77 명(51.3%)으로 양측이 서로 비슷했다. 부 교육 정도로는 양측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한국 군인 88 명(56.1%), 미국 군인 78 명(5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졸업 이상이 한국 군인 14 명(8.9%), 미국 군인 59 명(39.3%)으로 미국 군인들의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았다. 모 교육 정도도 대학 졸업 이상이 한국 군인 14 명(8.9%), 미국 군인 59 명(39.3%)으로 미국 군인들의 어머니 교육 수준이 높았다. 군 복무 중 성교육을 받은 경우는 한국군인은 57 명(36.3%), 미국 군인은 106 명(70.7%)으로 미국 군인들이 성교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N = 307

특성	구분	한국군인(n=157)	미국군인(n=150)	전체
		n ( % )	n ( % )	n ( % )
연령	20 세 이하	44(28.0)	56(37.3)	100(32.6)
	21 ~ 22 세	81(51.6)	55(36.7)	136(44.3)
	23 세 이상	32(20.4)	39(26.0)	71(23.1)
계급	일병 이하	32(20.4)	24(16.0)	56(18.2)
	이 병	54(34.4)	63(42.0)	117(38.1)
	상 병	32(20.4)	54(36.0)	86(28.0)
	병 장	39(24.8)	9(6.0)	48(15.6)
교육 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20.4)	67(44.7)	99(32.2)
	대학 휴학· 졸업	125(79.6)	83(55.3)	208(67.8)
종교 유무	있다	75(47.8)	77(51.3)	152(49.5)
	없다	81(51.6)	73(48.7)	154(50.2)
부 교육 정도	중학교 졸업 이하	39(24.8)	18(12.0)	57(18.6)
	고등학교 졸업	88(56.1)	78(52.0)	166(54.1)
	대학 졸업 이상	14(8.9)	59(39.3)	83(27.0)
모 교육 정도	중학교 졸업 이하	52(33.1)	18(12.0)	70(22.8)
	고등학교 졸업	90(57.3)	71(47.3)	161(52.4)
	대학 졸업 이상	14(8.9)	59(39.3)	73(23.8)
군복무 중 성교육 유무	있다	57(36.3)	106(70.7)	163(53.1)
	없다	100(63.7)	44(29.3)	144(46.9)

## 2. 성태도

대상자들의 성태도의 점수는 <표 2>와 같다. 한국군인들은 피임(4.01±.71), 자위행위(3.02±.53), 혼전성교(3.01±.74)의 순서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미국군인들은 피임(4.15±.70), 혼전성교(3.66±.85), 자위행위(3.53±.66)의 순서대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군인들이 제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동성애이었고, 미국군인들은 낙태에 대해 제일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인들과 미국군인들의 성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한 결과, 미국군인들이 자위행위(t=7.32, p=.000), 혼전성교(t=7.17, p=.000), 낙태(t=2.71, p=.007) 그리고 동성애(t=5.90, p=.000)에 관해 한국군인들 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피임(t=1.69, p=.090)에 관한 태도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 표 2 > 한국 군인과 주한 미국 군인의 성태도 차이 검정

N = 307					
구분	계	한국군인 (n=157)	미국군인 (n= 150)	t	p
	M±SD	M±SD	M±SD		
자위 행위	3.27±.65	3.02±.53	3.53±.66	7.32	.000***
피 임	4.08±.71	4.01±.71	4.15±.70	1.69	.090
혼전 성교	3.33±.86	3.01±.74	3.66±.85	7.17	.000***
낙 태	2.69±.94	2.55±.77	2.84±1.08	2.71	.007**
동 성 애	2.71±.97	2.40±.82	3.03±1.01	5.90	.000***

\*p<.05, \*\*p<.01, \*\*\*p<.001

각 성태도에 따른 세부 문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위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결혼한 사람이 하는 자위행위는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인 역 문항에서 한국군인은 2.71±1.06, 주한미국군인은 3.27±1.12 를 나타냈으며 자위행위의 문항 중 두 그룹간 가장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t=4.47, p=.000) < 표 2-1 >. '자위행위로 긴장을 해소하는 일은 건강한 행위이다'의 문항에서 한국군인은 3.29±.98, 미국군인 3.84±.95 의 태도를 보였고(t=4.88, p=.000), '자위행위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장려되어야 한다' 의 문항에서 한국군인 3.06±.83, 미국군인 3.48±.99 의 태도(t=4.02, p=.000)로 두 그룹이 전반적으로 자위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미국군인들이 한국군인들에 비해 자위행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표 2-1 > 한국군인과 주한 미국군인의 자위행위 태도 차이 검정

N=307					
문항	계	한국 (n=157)	미국 (n=150)	t	p
	M ±SD	M ±SD	M ±SD		
결혼한 사람이 하는 자위행위는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2.98±1.12	2.71±1.06	3.27±1.12	4.47	.000***
자위행위로 긴장을 해소하는 일은 건강한 행위이다	3.56±1.00	3.29±.98	3.84±.95	4.88	.000***
자위행위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장려되어야 한다	3.27±.94	3.06±.83	3.48±.99	4.02	.000***
합계	3.27±.65	3.02±.53	3.53±.66	7.32	.000***

(\*): 역 문항, \*p<.05, \*\*p<.01, \*\*\*p<.001

피임에 관한 태도 문항들 중 '피임은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의 문항에서는 한국 군인 3.84±.96, 미국군인들 4.06±.98로 미국 군인들의 점수가 높았다(t = 1.97, p=.049) <표 2-2>. '피임은 여자의 책임 만큼 남자의 책임이기도 하다'의 문항에서는 양측 모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는데, 점수는 한국 군인이 4.18 ±.72 이고, 미국군인이 4.24±.9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측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56, p=.574).

< 표 2-2 > 한국군인과 주한 미국군인의 피임에 관한 태도 차이 검정

N=307

문항	계	한국 (n=157)	미국 (n=150)	t	p
	M ±SD	M ±SD	M ±SD		
피임은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3.95±.97	3.84±.96	4.06±.98	1.97	.049*
피임은 여자의 책임 만큼 남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4.21±.85	4.18±.72	4.24±.97	.56	.574
합계	4.08±.71	4.01±.71	4.15±.70	1.69	.090

\*p<.05, \*\*p<.01, \*\*\*p<.001

혼전성교 태도 문항들 중 한국군인은 '성관계는 결혼한 배우자들 끼리만 하는 것이다'의 역 문항에서 3.57±1.08로 제일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혼전성교태도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여성은 결혼 전에 성경험이 있어야 한다'에서 2.58 ±1.08의 점수로 좀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표 2-3 >. 미국군인들은 혼전성교태도의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한국군인들과 미국군인들 사이에 가장 큰 이견을 보

인 문항으로는 '성인 사이에서는 혼전 성관계가 용납이 된다' 의 문항으로 나타났다( $t=8.28, p=.000$ ). 두 그룹 모두 '여성은 결혼 전에 성경험이 있어야 한다' 보다 '남성은 결혼 전에 성경험이 있어야 한다' 의 문항에서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관계는 결혼한 배우자들 끼리만 하는 것이다' 문항에서는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t=.72, p=.469$ ), 그 외의 문항인 '여성은 결혼 전에 성경험이 있어야 한다'( $t=6.59, p=.000$ )와 '남성은 결혼 전에 성경험이 있어야 한다'( $t=5.36, p=.000$ )등의 문항에서 모두 미국군인들이 유의하게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 표 2-3 > 한국군인과 주한 미국군인의 혼전성교 태도 차이 검정

N=307

문항	계	한국 (n=157)	미국 (n=150)	t	p
	M ±SD	M ±SD	M ±SD		
성인 사이에서는 혼전 성관계가 용납된다	3.48±1.23	2.96±1.19	4.02±1.02	8.28	.000***
성관계는 결혼한 배우자들 끼리만 하는 것이다 (*)	3.61±1.12	3.57±1.08	3.66±1.16	.72	.469
여성은 결혼 전에 성경험이 있어야 한다	2.98±1.15	2.58±1.08	3.40±1.08	6.59	.000***
남성은 결혼 전에 성경험이 있어야 한다	3.24±1.13	2.92±1.07	3.58±1.09	5.36	.000***
합계	3.33±.86	3.01±.74	3.66±.85	7.17	.000***

(\*): 역 문항, \* $p<.05$ , \*\* $p<.01$ , \*\*\* $p<.001$

낙태에 대한 태도에는 양측 모두 태도 점수가 2 점 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표 2-4 >. '낙태는 어떤 조건이라도 승인 해서는 안 된다' 의 역 문항( $t=3.14, p=.002$ )과 '낙태는 살인이다' 의 역 문항( $t=3.53, p=.000$ )에서 모두 미국 군인들의 태도가 한국 군인들 보다는 유의하게 허용적 이

였다. '낙태는 어머니가 원한다면 허용 되어야 한다' 의 문항에서는 한국군인들의 태도 점수가  $2.89 \pm 1.17$  이고, 미국군인들이  $2.86 \pm 1.29$  로 성태도 문항들 중 유일하게 한국군인들이 미국군인들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 = -.17, p = .857$ ).

< 표 2-4 > 한국군인과 주한 미국군인의 낙태에 관한 태도 차이 검증

N=307					
문항	계	한국 (n=157)	미국 (n=150)	t	p
	M ±SD	M ±SD	M ±SD		
낙태는 어떤 조건이라도 승인해서는 안 된다 (*)	2.81±1.18	2.60±1.10	3.02±1.24	3.14	.002**
낙태는 살인이다 (*)	2.40±1.20	2.16±.97	2.64±1.37	3.53	.000***
낙태는 어머니가 원한다면 허용 되어야 한다	2.87±1.23	2.89±1.17	2.86±1.29	-.17	.857
합계	2.69±.94	2.55±.77	2.84±1.08	2.71	.007**

(\*): 역 문항, \* $p < .05$ , \*\* $p < .01$ , \*\*\* $p < .001$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동성애에 관한 태도 차이 검증에서 가장 큰 점수차이를 나타낸 문항은 '동성애는 병으로 간주해야 한다' 의 역 문항으로 한국군인은  $2.56 \pm 1.09$ , 미국군인은  $3.47 \pm 1.15$  의 점수를 나타냈다 ( $t = 7.10, p = .000$ ) < 표 2-5 >. 그 밖에 '동성애는 혐오스럽다'의 역 문항 ( $t = 3.80, p = .000$ )과 '동성애는 성인 사이에서는 괜찮다'의 문항( $t = 6.28, p = .000$ )에서 미국군인들이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성애자들은 설혹 모범적으로 근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용해서는 안 된다'의 역 문항에서는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군인들은 모든 항목에서 3 점 이하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표 2-5 > 한국군인과 주한 미국군인의 동성애에 관한 태도 차이 검정

N=307

문항	계	한국 (n=157)	미국 (n=150)	t	p
	M ±SD	M ±SD	M ±SD		
동성애자들은 설혹 모범적으로 근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용해서는 안 된다 (*)	2.98±1.25	2.87±1.26	3.10±1.24	1.58	.114
동성애는 병으로 간주해야 한다(*)	3.00±1.21	2.56±1.09	3.47±1.15	7.10	.000***
동성애는 혐오스럽다 (*)	2.53±1.26	2.27±1.13	2.81±1.33	3.80	.000***
동성애는 성인 사이에서는 괜찮다	2.31±1.21	1.91±1.01	2.74±1.26	6.28	.000***
합계	2.71±.97	2.40 ±.82	3.03 ±1.01	5.90	.000***

(\*): 역 문항, \*p<.05, \*\*p<.01, \*\*\*p<.001

### 3. 성행동

#### 1) 대상자의 성경험 유무

대상자들의 키스 / 포옹, 자위행위, 동성애와 혼전성교의 경험 유무는 < 표 3 >에 제시한 것과 같다. 키스와 포옹 경험의 경우 한국 군인들은 123 명이 있다고 응답을 해서 78.3% 인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군인들의 경우 89.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chi^2=6.795$ ,  $p=.009$ ). 자위행위의 경험으로는 한국 군인이 132 명(84.1%)이고, 미국 군인이 145 명

(96.7%)으로 양측 모두에서 높은 경험비율을 나타냈다( $\chi^2=13.791$ ,  $p=.000$ ). 동성애의 경험으로는 한국 군인이 1.9%로, 미국 군인들이 3.3%로 나타났으며, 양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493$ ). 혼전 성교의 경험으로는 한국 군인들이 59.2%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미국 군인들은 88.0%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chi^2=32.422$ ,  $p=.000$ ). 키스와 포옹, 자위행위 그리고 혼전성교에서 미국 군인들의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 표 3 > 한국군인과 주한 미국군인의 성경험 유무

N=307						
항 목	구 분	계 실수(%)	한 국 (n=157) 실수(%)	미 국 (n= 150) 실수(%)	$\chi^2$	p
키스 / 포옹	유	257(83.7)	123(78.3)	134(89.3)	6.795	.009**
	무	50(16.3)	34(21.7)	16(10.7)		
자위행위	유	277(90.2)	132(84.1)	145(96.7)	13.791	.000***
	무	30(9.8)	25(15.9)	5(3.3)		
동성애	유	8(2.6)	3(1.9)	5(3.3)		*.493
	무	299(97.4)	154(98.1)	145(96.7)		
혼전성교	유	225(73.3)	93(59.2)	132(88.0)	32.422	.000***
	무	82(26.7)	64(40.8)	18(12.0)		

\*Fisher`s Exact Test 이용, \* $p<.05$ , \*\* $p<.01$ , \*\*\* $p<.001$

## 2) 대상자의 최초 성경험 시기

키스와 포옹에 관한 최초의 경험 시기를 보면 < 표 3-1 > 한국 군인들의 경우에는 16 ~ 18 세(50.4%)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군인들의 경우는 9 세 이하에서의 경험비율이 28.4%, 10 ~ 12

세 사이가 25.4% 이고, 13 ~ 15 세 사이가 27.6%로 대부분 어린 나이에  
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 행위의 경우 한국 군인의 경우 13 ~ 15 세 에서 50.7%, 16 ~ 18  
세 에서 34.1%로, 미국 군인의 경우는 10 ~ 12 세가 37.9%이고, 13 ~ 15  
세가 44.8%로 나타났다. 혼전 성교에서는 한국 군인은 16 ~ 18 세 사이가  
49.5%로 19 세 이상이 4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군인은 13 ~ 15  
세 사이가 39.4%로, 16 ~ 18 세 사이가 35.6%로 나타났다. 키스와 포옹  
( $\chi^2=117.609$ ,  $p=.000$ ), 자위행위( $\chi^2=50.018$ ,  $p=.000$ ) 그리고 혼전성교  
( $\chi^2=57.574$ ,  $p=.000$ )에서 모두 미국 군인들의 최초 성경험 시기가 한국  
군인들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8 세 이하의 나이에 성경험을 하는 비율은, 키  
스와 포옹의 경우 한국군인들은 56.0%, 미국군인들은 82.0%, 자위행위는  
한국군인 78.3%, 미국군인 93.3%, 혼전성교의 경우 한국군인 35.0%, 미  
국군인들은 77.3%가 18 세 이전의 나이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 > 한국군인과 주한 미국군인의 최초 성경험 시기

최초경험시기	키스/포옹		자위행위		혼전성교	
	한국군(n=123) 실수(%)	미국군(n=134) 실수(%)	한국군(n=132) 실수(%)	미국군(n=145) 실수(%)	한국군(n=93) 실수(%)	미국군(n=132) 실수(%)
9 세 이하	0(0.0)	38(28.4)	1(0.7)	5(3.4)	0(0.0)	2(1.5)
10 ~ 12 세	2(1.6)	34(25.4)	10(7.6)	55(37.9)	1(1.1)	15(11.4)
13 ~ 15 세	24(19.5)	37(27.6)	67(50.7)	65(44.8)	8(8.6)	52(39.4)
16 ~ 18 세	62(50.4)	14(10.4)	45(34.1)	15(10.3)	46(49.5)	47(35.6)
19 세 이상	30(24.4)	9(6.7)	5(3.8)	1(0.7)	38(40.9)	11(8.3)
$\chi^2$	117.609		50.018		57.574	
p	.000***		.000***		.000***	

\* 무응답 제외, \* $p<.05$ , \*\* $p<.01$ , \*\*\* $p<.001$

### 3) 대상자의 혼전 성교 상대 수

한국 군인과 미국군인의 혼전성교 상대 수는 두 그룹 모두 5 ~ 10 명 사이가 각각 28 명(30.1%)과 45 명(34.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 표 3-2 >. 5 명 이상인 경우가 한국군인의 경우 42%를 나타냈고, 미국군인의 경우는 71.2%를 나타냈다. 미국 군인들이 한국 군인에 비해 성교 상대 수가 많았다( $\chi^2=29.927$ ,  $p=.000$ ).

< 표 3-2 > 한국군인과 주한 미국군인의 혼전성교 상대 수

구 분	계(n=225) 실수(%)	한 국 (n=93) 실수(%)	미 국 (n= 132) 실수(%)	$\chi^2$	p
1 명	25(11.1)	17(18.3)	8(6.1)	29.927	.000***
2 명	18(8.0)	10(10.8)	8(6.1)		
3 ~ 4 명	38(16.9)	23(24.7)	15(11.4)		
5 ~ 10 명	73(32.4)	28(30.1)	45(34.1)		
11 ~ 29 명	42(18.7)	10(10.8)	32(24.2)		
30 명 이상	18(8.4)	1(1.1)	17(12.9)		

\* 무응답 제외, \* $p<.05$ , \*\* $p<.01$ , \*\*\* $p<.001$

### 4) 대상자와 성교 결과로 인한 상대자의 낙태경험 유무

대상자와의 성교 결과로 인해 상대방이 낙태를 경험했던 경우가 한국 군인들은 18 명(19.0%)이고, 미국 군인들의 경우는 15 명(11.0%)이 낙태를 경험했었다고 응답을 했다 < 표 3-3 >. 한국 군인의 경우가 더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2.784$ ,  $p=.095$ ).

< 표 3-3 > 한국군인과 주한 미국군인의 성교 결과로 인한 상대자의 낙태경험유무

항 목	구 분	계(n=225) 실수(%)	한 국 (n=93) 실수(%)	미 국 (n=132) 실수(%)	$\chi^2$	p
낙 태	유	33(15.0)	18(19.0)	15(11.0)	.784	.095
	무	192(85.0)	75(81.0)	117(89.0)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와 성행동의 차이

##### 1) 한국군인과 미국군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혼전성교 태도

한국군인들과 미국군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혼전성교 태도는 < 표 4-1 >과 같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한국군인들이 대학 휴학·졸업 이상의 한국군인들에 비해 유의하게 혼전성교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t=2.45, p=.015$ ). 그리고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한국군인들의 종교가 없는 경우( $t=-.99, p=.321$ ),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F=.11, p=.890$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F=.02, p=.974$ ), 혼전성교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인들의 연령( $F=1.94, p=.147$ ), 계급( $F=.32, t=.809$ )에 따른 혼전 성교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군인들은 종교가 없는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에 비해 혼전성교에 대해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24, p=.001$ ) < 표 4-2 >. 또한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나이가 어린 경우( $F=.923, p=.400$ ), 본인의 교육 정도가 낮은 경우( $t=.95, p=.341$ ),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F=1.89, p=.154$ ) 혼전성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군인들의 계급( $F=.66, p=.574$ )과

모 교육정도(F=.92, p=.399)에 따른 혼전성교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1 >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혼전성교태도 차이 검정

N=307				
특성 / 구분	한국군인(n=157)	t / F	미국군인(n=150)	t / F
	M±SD	(p)	M±SD	(p)
<b>연령</b>				
20 세 이하	2.89±.72	1.94	3.78±.80	.923
21~22 세	2.99±.76	(.147)	3.64±.95	(.400)
23 세 이상	3.22±.70		3.54±.77	
<b>계급</b>				
이병 이하	3.10±.71	.32	3.64±.98	.66
일 병	2.94±.83	(.809)	3.75±.76	(.574)
상 병	3.03±.56		3.62±.89	
병 장	3.00±.79		3.36±.83	
<b>교육 정도</b>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9±.75	2.45	3.74±.85	.95
대학 휴학·졸업	2.94±.72	(.015*)	3.60±.85	(.341)
<b>종교 유무</b>				
있 다	2.94±.70	-.99	3.45±.88	-3.24
없 다	3.06±.77	(.321)	3.89±.75	(.001**)
<b>부 교육 정도</b>				
중학교 졸업 이하	3.04±.68	.11	3.95±.67	1.89
고등학교 졸업	3.01±.77	(.890)	3.68±.89	(.154)
대학 졸업 이상	2.95±.74		3.51±.82	
<b>모 교육 정도</b>				
중학교 졸업 이하	2.99±.61	.02	3.90±.72	.92
고등학교 졸업	3.01±.79	(.974)	3.59±.94	(.399)
대학 졸업 이상	3.03±.89		3.66±.78	

\*p<.05, \*\*p<.01, \*\*\*p<.001

## 2) 한국군인과 미국군인의 계급에 따른 혼전성교 경험의 비교

계급에 따른 이성간의 혼전성교 경험은 한국 군인의 경우 이병(56.3%), 일병(55.6%), 상병(65.6%), 병장(61.5%)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i^2=1.048$ ,  $p=.790$ ) < 표 4-2 >. 미국 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병(91.7%), 일병(90.5%), 상병(83.3%) 그리고 병장(88.9%)들의 계급 간에는 혼전경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1.792$ ,  $p=.617$ ).

< 표 4-2 > 한국군인과 주한 미국군인의 계급에 따른 이성간의 혼전성교 경험 유무 차이 검정

구분	한국군(n=157)				미국군(n=150)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혼전성교	18(56.3)	30(55.6)	21(65.6)	24(61.5)	22(91.7)	57(90.5)	45(83.3)	8(88.9)
무성교	14(43.8)	24(44.4)	11(34.4)	15(38.5)	2(8.3)	6(9.5)	9(16.7)	1(11.1)
$\chi^2$	1.048				1.792			
p	.790				.617			

## 3) 한국군인과 미국군인의 종교 유무에 따른 낙태 경험의 비교

혼전성교를 경험한 대상자들의 종교 유무에 따라 상대방이 낙태를 경험했었는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 >. 한국군인( $\chi^2=.245$ ,  $p=.621$ )과 미국군인( $\chi^2=.022$ ,  $p=.881$ )들 모두 종교 유무에 따른 낙태 경

험의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 표 4-3 > 대상자의 종교 유무에 따른 낙태 경험 차이 검정

구 분	실수(%)			
	한국(n=93)		미국(n=132)	
	종교유 실수(%)	종교무 실수(%)	종교유 실수(%)	종교무 실수(%)
낙태 유	11(61.1)	41(54.7)	7(46.7)	57 (48.7)
낙태 무	7 (38.9)	34 (45.3)	8 (53.3)	60 (51.3)
$\chi^2$	.245		.022	
p	.621		.881	

## V. 논 의

### 1. 한국군인과 미국군인의 성태도

한국군인들이 갖고 있는 성태도의 긍정적인 순서는 피임, 자위행위, 혼전성교, 낙태 그리고 동성애로 나타났다. 피임, 자위행위, 혼전성교 등은 3 점 이상의 점수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자위행위에 대한 태도는 점차 허용적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위행위 태도점수는  $3.02 \pm .53$  으로 성한기(1996)의 같은 5 점 문항 점수인  $2.47 \pm 1.22$  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에 대한 태도의 점수로는  $2.55 \pm .77$  의 점수로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에 대한 태도는 두 그룹 모두 4 점 이상의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임은 해야할만 한 가치가 있다'의 문항에서 한국군인 ( $3.84 \pm .96$ )과 미국군인( $4.06 \pm .98$ )들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특히 '피임은 여자의 책임만큼 남자의 책임이기도 하다'의 문항에서는 두 그룹 각각  $4.18 \pm .72$ ,  $4.24 \pm .97$  의 높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피임은 남녀 모두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나타냈다. 혼전성교에 관한 태도는 한국군인 ( $3.01 \pm .74$ )과 미국군인( $3.66 \pm .85$ )들 모두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났으나, 미국군인들의 혼전성교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년들의 혼전성교 태도 역시 급속히 증가되는 추세인데, 공미혜(1993)의 연구에서 혼전성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38.2%, 문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50.2%, 고연숙(2001)의 연구에서는 66.3%를 나타내고 있다. 5 점 문항의 성한기(1996)의 논문에서는 남자대학생들의 혼전성교 태도가 2.47 로 나타났었다. 본 연구에서 많이 허용적으로 변화된 것

을 알 수 있다. 낙태에 대한 태도 연구를 보면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 낙태의 허용 비율이 50.7%에서 장휘숙(1995)과 문인옥(1997)의 연구에서 점차 증가하여 고연숙(2001)의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에서 74.2%의 낙태 허용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낙태에 관한 태도 점수는  $2.55 \pm .77$  로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군인의 동성애에 관한 태도는  $2.40 \pm .82$  로 성태도 중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좀더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권(1994)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들이 0.8%만이 동성애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중립이 4.4%를 보였었다. 장휘숙(1995)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2.76%, 중립이 5.77%이었고, 고연숙(2001)의 연구에서는 긍정이 10.2%, 중립이 34%로 나타났었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TV 매체 등을 통하여 동성 연예인들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화되면서 변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추측된다.

한국군인들의 이러한 전반적인성태도의 변화등을 고려할때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군인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군인들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허용적인 성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긍정적인 성태도의 순서로 피임, 혼전성교, 자위행위, 동성애, 그리고 낙태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위행위, 피임, 혼전성교의 태도는 모두 3.5 이상의 점수로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낙태에 관한 태도로,  $2.84 \pm 1.08$  의 점수이지만 한국군인들 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2. 한국군인과 미국군인의 성행동

본 연구에서 한국군인들의 키스와 포옹의 경험비율은 78.3%로 높게 나타났다. 장휘숙(1995); 54.03%, 문인옥(1997); 63.4%, 고연숙(2001); 73.7% 의 연구에서 보면, 지난 10 년간의 키스와 포옹의 경험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군인들의 키스와 포옹 경험비율은 89.3%로 나타났다. 미국군인에서 키스와 포옹의 경험 비율은 15 세 까지 81.4%로 대부분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30 년 전에 약 65%가 13 세 이하의 나이에 키스와 포옹을 경험 하였다고 응답하였다(Vener 등, 1974; 장휘숙 인용, 1995). 한국군인들은 15 세 이하의 나이에서 21.1%가 경험을 하였고, 절반 정도인 50.4%가 16~18 세 사이에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군인들은 18 세 이전에 56.0%, 미국군인들은 82.0%가 18 세 이전의 나이에 키스와 포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스와 포옹은 가장 흔한 성행동 중의 하나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인들의 자위행위 경험비율은 84.1%를 나타냈다. 장휘숙(1995)과 고연숙(2001)의 연구에서 보면, 자위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40%대인 것에 반해, 자위행위 경험은 그 것의 2 배가 되는 90% 이상의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위행위에 대한 태도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된 것에 반하여, 자위행위의 경험 비율은 선행 연구보다 더 낮은 비율을 보임으로 자위행위에 대한 태도와 경험한 비율의 차이가 좁아졌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군인들의 경우는 96.7%가 자위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1979 년의 조사에서 보면 18 세 까지 90~98%가 자위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휘숙, 1995). 미국군인의 경우 특별한 변화는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인들의 혼전성교 경험비율은 59.2%로 나타났는데 이는 혼전성교태도의 변화와 함께 행동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성한기)년에는 같은 연령대인 남자 대학생들의 혼전성교 경험비율이 27.3%, 2001(고연숙)년의 46.8%이었던 것과 비교 할 때 혼전성교 행동의 급진적인 변화를 볼 수 있다. 한국군인들이 18 세 이전에 혼전성교를 경험한 비율이 35.0%임을 감안할때 중학교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흥미로운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휘숙(1995)의 연구에서는 군필자와 군미필자의 혼전성교 경험율의 차이가 각각 57.76%와 14.25%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군입대 전 시기와 군 제대 후의 시기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미국군인들의 혼전성교 비율은 88.0%를 나타냈다. 1990년의 조사로 미국남자 청소년의 경우 18 세 이하의 나이에 67%, 20 세까지 에서 80%의 청년들이 혼전 성교를 경험했다고 하였다(장휘숙, 1995). 미국의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의 혼전성교 경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91 년;54.1%, 1995 년; 53.1%, 1999 년; 49.9%, 2003 년; 46.7%).

동성애의 경험 비율은 한국군인에서 1.9%와 미국군인들에서 3.3%의 비율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선행연구의 2.52%(장휘숙, 1995)와 0.6%(고연숙, 2001)와 비교해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참작하면 앞으로 이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한국군인들과 미국군인들 간의 성태도와 성행동의 비교

한국군인들과 미국군인들의 피임에 대한 태도는 두 그룹 모두 아주 허용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 그 외의 자위행위, 혼전성교, 낙태,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태도 모두 미국군인들이 한국군인들 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내용들은 특히 혼전성교에 관한 내용으로, '성인 사이에서는 혼전 성관계가 용납된다'의 문항과 '여성은 결혼 전에 성경험이 있어야 한다'의 문항에서 미국군인들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두 그룹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혼전성교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동성애에 관한 태도로 '동성애는 병으로 간주해야 한다'의 역 문항과 '동성애는 성인 사이에서는 괜찮다'의 문항에 미국군인들이 한국군인들에 비해 아주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동성애 경험의 비교에서 두 그룹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키스와 포옹의 경험은 한국군인들은 78.3%이고, 미국군인들은 89.3%로 나타났다( $\chi^2=6.795$ ,  $p=.009$ ). 키스와 포옹을 경험한 대상자들 중에서 18 세 이전에 경험을 한 비율이 한국군인은 71.5%가 경험하였으며, 미국군인의 경우는 91.8%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써 미국군인들의 경험 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행위의 경험 비율 역시 미국군인(96.7%)이 한국군인(84.1%)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위행위 경험이 주로 시작되는 나이는 한국군인(50.7%)과 미국군인(44.8%) 모두

13~15 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군인은 18 세 이전에 자위행위 경험 빈도가 78.4%이며, 미국군인의 경우는 90.0%로 나타났다.

혼전성교 경험을 한 비율은 한국군인들은 59.2%였고, 미국군인들은 88.0%로 나타나므로 미국군인들의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chi^2=32.422$ ,  $p=.000$ ). 전체적으로 한국군인의 경우 18 세 이전에 성교를 경험한 비율은 35%이었고, 미국군인의 경우는 77.3%로 나타나므로 미국군인들의 성교경험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경험 시기는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흑인들의 경우 다른 흑인들에 비해서 성교를 시작하는 연령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Rosenbaum 등,1990).

혼전성교의 최초 경험 시기를 보면 미국군인들이 한국군인들에 비해 혼전성교 경험시기가 2.6 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성교를 경험한 대상자들 중, 성관계 상대 수는 5 명 이상이 한국군인은 42%로 미국군인들은 71.2%로 나타났으며, 미국군인들이 경험한 상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9.927$ ,  $p=.000$ ). 성한기(1996)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관계 상대 수가 5 명이 넘는 비율이 18.29%이었고, 정희정(2001)의 연구에서는 36.6%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급격한 성문화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혼전성교를 경험한 대상자들 중, 성교 결과로 상대방이 낙태를 경험한 비율은 한국군인들은 19%의 비율을 보였고, 미국군인들은 11%의 비율을 보였지만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와 성행동의 차이

한국군인들은 교육 정도가 낮은 경우 혼전성교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t=2.45, p=.015$ ). 이는 대학생과 근로자들의 성행태에 관해 비교한 임종권(1994)의 연구와 일치한다. 미국군인들은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에 유의하게 혼전성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t=-3.24, p=.001$  ). 한국군인들과 미국군인들 모두에서 본인의 교육 정도가 낮을 수록 혼전성교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수준이 낮을 수록 혼전성교를 시작하는 나이가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Smith 등 인용,2005; Gates 등, 2000). 양 그룹 모두에서 계급에 따른 혼전성교 태도와 경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교시기가 빨라지므로 군복무 중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최근에 군대의 문화가 바뀌어 가므로 인해 군대의 성문화도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교 유무에 따른 낙태의 경험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미국의 경우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경우 낙태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결혼하는 비율은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th 등, 2005).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청년기의 미혼 남자들 중 한국군인들과 주한 미국군인들을 대상으로 성태도와 성행동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 실태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추후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대학생 연령층의 청년들에게 성상담이나 성교육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실시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05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 까지 22일간 이었다. 한국군인들은 S시에 위치한 기차역 2곳과 버스터미널 3곳을 통과하는 군인들 16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임의표집하였다. 주한 미국군인들은 P시에 위치한 주한미군부대에서 85명, D시에 위치한 주한 미군부대에서 80명, 총 165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여 조사하였다. 총 33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고 324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8%였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307부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WIN 11.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군인의 성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서 평균, 자위행위  $3.02 \pm .53$ , 피임  $4.01 \pm .71$ , 혼전성교  $3.01 \pm .74$ , 낙태  $2.55 \pm .77$ , 동성애  $2.40 \pm .82$  의 결과를 보였고, 주한미국군인의 성태도 점수는 자위행위  $3.53 \pm .66$ , 피임  $4.15 \pm .70$ , 혼전성교  $3.66 \pm .85$ , 낙태  $2.84 \pm 1.08$ , 동성애  $3.03 \pm 1.01$  의 결과를 보였다.

- 2) 한국군인의 성경험 비율 중, 키스와 포옹의 경험 비율은 123(78.3%), 자위행위 132(84.1%), 동성애 3(1.9%), 혼전 성교 93(59.2%)의 결과를 보였다. 주한미국군인은 키스와 포옹 134(89.3%), 자위행위 145(96.7%), 동성애 5(3.3%), 혼전성교 132(88.0%)의 결과를 보였다. 혼전성교로 인한 상대방의 낙태경험은 한국군인은 18(19.0%), 미국군인은 15(11.0%)의 결과를 보였다.
- 3) 키스와 포옹의 최초경험시기의 평균 나이는 한국군인은 17.1 세, 미국군인은 12.7 세로 4.4 세의 나이차이를 보였다. 자위행위의 최초경험시기 평균 나이는 한국군인은 15.2 세, 미국군인은 12.9 세로 2.3 세의 나이차이를 보였다. 혼전성교의 최초경험시기의 평균나이는 한국군인은 17.8 세, 미국군인은 15.2 세로 미국군인들이 2.6 세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의 최초경험시기는 한국군인은 19 세, 미국군인은 8 세를 나타냈고, 혼전성교로 인한 상대방의 낙태경험의 최초경험시기는 한국군인은 17 세, 미국군인은 15 세의 결과를 나타냈다.
- 4) 한국군인과 주한미국군인의 혼전성교 상대 수는 5~10 명 사이가 한국군인은 28 명(30.1%)과 주한미국군인 45 명(34.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혼전성교 상대 수가 5 명 이상인 경우는 한국군인은 39(42.0%)의 결과를 보였고, 주한미국군인의 경우는 94(71.2%)의 결과를 보였다.

5) 주한미국군인은 한국군인들에 비해 자위행위(  $t=7.32$ ,  $P=.000$ ), 혼전성교(  $t=7.17$ ,  $p=.000$ ), 낙태(  $t=2.71$ ,  $P=.007$ ), 동성애(  $t=5.90$ ,  $P=.000$ )의 성태도에서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피임에 대한 태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1.69$ ,  $p=.090$ ).

주한미국군인은 한국군인들 보다 키스와 포옹( $\chi^2=6.795$ ,  $p=.009$ ) , 자위행위( $\chi^2=13.791$ ,  $p=.000$ ), 혼전성교( $\chi^2=32.422$ ,  $p=.000$ )의 경험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동성애의 경험비율은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612$ ,  $p=.493$ ). 주한미국군인은 한국군인들 보다 키스와 포옹( $\chi^2=117.609$ ,  $p=.000$ ) , 자위행위( $\chi^2=50.018$ ,  $p=.000$ ) , 혼전성교( $\chi^2=57.574$ ,  $p=.000$ )의 최초 경험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군인은 한국군인에 비해 성관계 상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9.927$ ,  $p=.000$ ).

6) 한국군인들은 교육 정도가 낮은 경우 혼전성교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t=2.45$ ,  $p=.015$ ). 미국군인들은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에 유의하게 혼전성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t=-3.24$ ,  $p=.001$  ). 한국군인들과 주한미국군인들의 양 그룹 모두에서 계급에 따른 혼전성교 태도와 경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교 유무에 따른 낙태의 경험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군인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 2) 군 입대 전 시기와 군 제대 후의 시기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3) 혼전성교의 시기가 점점 빨라 지는 것을 감안하여, 중학교 과정에 구체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 4)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필요하고 성실태에 부합되는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흥미로운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 참고문헌

1. 고연숙: 남녀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0
2. 공미혜: 은폐된 성, 과장된 성. 여성연구논집 4: 27-47, 1993
3. 구성애: 구성애의 성교육. 도서출판 석탑, 1995
4. 김애순: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시그마프레스, 2005
5. 김애순, 윤진: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중앙적성출판사, 1997
6. 김정순: 성병 및 에이즈 발생실태와 대응전략. 보건학논집, 36 (1): 1-11, 1999
7. 김정옥: 학교 성교육의 현황 및 지도내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3): 217-238, 1998
8. 김한경: 남녀 근로 청소년의 성행태 비교 연구. 성공회대학논총, 7: 25-39, 1994
9. 김현경, 최수정, 김미경, 양경미, 임미림: 성지식 성태도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내용 분석. 보건증진학회지, 16 (1): 167-185, 1999

10. 남영옥: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성태도 및 성행동과 인터넷 성중독과의 관련성 연구. 복지행정논총, 13(1): 65-86, 2003
11. 문인옥: 일부 대학생의 성실태 조사연구. 교과교육학 연구, 1: 154-169, 1997
12. 박선영: 대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3. 배성미: 청소년의 성지식 성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14. 성한기: 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태도와 행동. 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2: 207-229, 1996
15. 안양숙, 정혜정, 이정숙: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도.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 생활 과학연구, 15: 137-154, 1997
16. 우리사회연구회: 성과 현대사회. 파란나라, 1994
17. 유근옥: 군인과 남자대학생의 섹슈얼리티 차이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8. 이시백: 성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9. 이영휘,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순남, 한유미, 황윤정: 대학생의 성 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 (1): 26-35, 1997
20. 이인숙: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간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4
21. 임종권: 미혼남성의 성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소, 1994
22. 장영미, 이시백: 학교 성교육 효과.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4 (1): 125-145, 1997
23. 장휘숙: 한국 대학생의 성에 대한 가치관 연구. 전환기에 선 한국인의 가치관, 소화, 1995
24.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역: 청소년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1
25. 정윤만: 일부지역 대학생의 성행동과 관련요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2002
26. 정희정: 미혼 남녀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가족학 석사학위논문, 2001

27. 조명환: 청소년 문화 정서지표 조사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29. 최윤미, 박희영, 손영숙, 정명숙, 김혜원: 현대 청년 심리학. 학문사, 1998
30. 통계청: www.nso.go.kr. 인구 통계, 2005
31. 한국부모교육학회: 성교육학. 교육과학사, 1998
32.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33. CDC: Trends in the Prevalence of Sexual Behaviors. Retrieved September 21, 2005, From <http://www.cdc.gov/yrbss>, 2005
34. Davis, C., Yarber, W., Bauserman, R., Schreer, G., and Davis, S. : Handbook of Sexuality-Related Measures. SAGE Publications, 1998
35. Diamond, L., and Dube, E.: Friendship and Attachment Among Heterosexual and Sexual-Minority Youths: Does the Gender of Your Friend Matte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 (2): 155-166, 2002

36. Gowen, K., Feldman, S., Diaz, R., and Yisrael, S : A Comparison of the Sexual Behaviors and Attitudes of Adolescent Girls With Older Vs. Similar-Aged Boy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2): 167-175, 2004
37. Lanctôt, N., and Smith, C.: Sexual Activity, Pregnancy, and Deviance in a Representative Urban Sample of African American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3): 349-372, 2001
38. Rosenbaum, E., and Kandell, D.: Early onset of adolescent sexual behavior and drug involvement. *Journal of marriage Family*, 52: 783-798, 1990
39. Schuster, M., Bell, R., Berry, S., and Kanouse, D.: Impact of a high school availability program on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Fam. Plann. Perspect*, 30: 67-72, 1998
40. Smith, L., Guthrie, B., and Oakley, D.: Studying Adolescent Male Sexuality: Where Are W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4 (4): 361-377, 2005
41. Sonenstein, F., Leighton KU and Pleck, J.: Measuring Sexual Behavior among Teenage Males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ing Sexual Behavior*, 5: 87-105, 1996

42. Tomal, A.: The Effect of Religious Membership on Teen Abortion Rat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1): 103-116, 2001

# Nursing Research Questionnaire

I am a nursing graduate student at Ajou University. Below is a questionnaire to survey attitudes toward sex and experiences in sexual behaviors. All data collected is confidential and anonymous. This data will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research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ex counseling and education.

Please take a few minutes to answer the questions below. Thank you for your time and cooperation.

2005. 7.

Researcher: Jang, Eun-hee

**\*Directions**

1. Please do not discuss your answers with other participants.
2. Answer the questions as honest as possible.
3. Please answer **ALL** questions unless otherwise directed.
4. Please ask the surveyor if you have any questions.

**Questions below are to ask general information on you.**

1. What is your age? \_\_\_\_\_ .
  
2. What is your rank? \_\_\_\_\_ .
  
3.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you have received?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answer).
  - 1). \_\_\_\_\_ Less than 12 years / High school graduate
  - 2). \_\_\_\_\_ Some college / College graduate
  
4. Do you consider yourself religious?
  - 1). \_\_\_\_\_ Yes    2). \_\_\_\_\_ No
  
5. How much formal education did your father receive?
  - 1). \_\_\_\_\_ Elementary school graduate / Junior high school graduate
  - 2). \_\_\_\_\_ Senior high school graduate
  - 3). \_\_\_\_\_ College graduate / Graduate or professional school

6. How much formal education did your mother receive?

1). \_\_\_\_\_ Elementary school graduate / Junior high school graduate

2). \_\_\_\_\_ Senior high school graduate

3). \_\_\_\_\_ College graduate / Graduate or professional school

7. Had your received sexual education while you were in army?

1). \_\_\_\_\_ Yes    2). \_\_\_\_\_ No

## Sexual Attitude Questionnaire

Below is a list of statements regarding sexual attitudes. There are no right or wrong answers. Please read each item carefully, and offer your frank opinion by checking one of the following options.

N O	QUESTION	Strongly Agree	Agre-e	Uncertai- n	Disagre-e	Strongly Disagree
1	Masturbation by a married person is a sign of poor marital adjustment.					
2	The practice of birth control is worthwhile.					
3	Premarital intercourse between consenting adults is acceptable.					
4	Abortion should be disapproved under all circumstances.					
5	Homosexuals should not be employed in occupations where they might serve as role models.					
6	Birth control is as much a man's responsibility as a woman's responsibility.					
7	Sexual intercourse should occur only between married partners.					
8	Homosexuality should be regarded as an illness.					
9	Relieving tension by masturbation is a health practice.					
10	Women should experience sexual intercourse prior to marriage.					
11	Abortion is murder.					
12	Homosexuality repulses me.					
13	Men should experience sexual intercourse prior to marriage.					
14	Abortion should be permitted whenever desired by the mother.					
15	Masturbation should be encouraged under certain conditions.					
16	Homosexuality is all right between two consenting adults.					

## **Sexual Behaviors Questionnaire**

Questions below are to survey your experiences in sexual behaviors. Please answer questions applicable to you.

1. Have you ever kissed or hugged a person of the opposite sex?

1). \_\_\_\_\_ Yes    2). \_\_\_\_\_ No

1-1 If yes, when was your first experience?

At the age of \_\_\_\_\_

2. Have you ever masturbated?

1). \_\_\_\_\_ Yes    2). \_\_\_\_\_ No

2-1. If yes, when was your first experience?

At the age of \_\_\_\_\_

3. Have you ever had a sexual relationship with a person of the same sex?

1). \_\_\_\_\_ Yes    2). \_\_\_\_\_ No

3-1. If yes, when was your first experience?

At the age of \_\_\_\_\_

4. Have you ever had a sexual relationship with a person of the opposite sex?

1). \_\_\_\_\_ Yes    2). \_\_\_\_\_ No

4-1. If yes, when was your first experience?

At the age of \_\_\_\_\_

5. How many persons have you had sexual relationships with until now?

\_\_\_\_\_ person(s)

6. Have any of your partners had an abortion as a result of sexual relationship with you?

1). \_\_\_\_\_ Yes 2). \_\_\_\_\_ No

6-1. If yes, when did the abortion happen?

At the age of \_\_\_\_\_

7. Do you use a condom when having a relation?

1). \_\_\_\_\_ Yes 2). \_\_\_\_\_ No

8. Have you ever had a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1). \_\_\_\_\_ Yes 2). \_\_\_\_\_ No

# 설문지

저는 아주 대학교 간호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아래의 설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행동의 경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누설되지 않게 하겠으며, 익명으로 다루겠습니다. 본 조사의 자료는 오직 성상담과 성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본 설문을 위해 잠시만 시간을 할애 해 주십시오.

귀하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2005 년 7 월

연구자: 장 은 희

**\* 설문지 작성시 주의사항**

1. 귀하의 답을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마십시오.
2. 가능한 한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3.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4. 혹 질문이 있으면, 조사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귀하에 관한 일반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_\_\_\_\_세
2. 귀하의 계급은 어떻게 되십니까?\_\_\_\_\_ .
3. 귀하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_\_\_\_\_고등학교 졸업 이하
  - 2) \_\_\_\_\_대학 휴학 · 졸업 이상
4.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 1) \_\_\_\_\_있다    2) \_\_\_\_\_없다
5. 귀하 부친의 정규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_\_\_\_\_중학교 졸업 이하
  - 2) \_\_\_\_\_고등학교 졸업
  - 3) \_\_\_\_\_대학 졸업 이상
6. 귀하 모친의 정규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_\_\_\_\_중학교 졸업 이하
  - 2) \_\_\_\_\_고등학교 졸업
  - 3) \_\_\_\_\_대학 졸업 이상

7. 귀하께서는 군대복무기간 중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 \_\_\_\_\_있다    2) \_\_\_\_\_없다

## 성태도 질문

다음은 성 태도에 관한 설명들입니다. 각각의 설명들이 옳거나 또는 틀리다 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설명을 유의 깊게 읽고 각각의 해당 되는 항목에 귀하의 솔직한 견해를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결혼한 사람이 하는 자위행위는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2	피임은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3	성인 사이에서는 혼전 성 관계가 용납된다					
4	낙태는 어떤 조건이라도 승인해서는 안 된다					
5	동성애자들은 설혹 모범적으로 근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용해서는 안 된다					
6	피임은 여자의 책임만큼 남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7	성관계는 결혼한 배우자들 끼리 만 하는 것이다					
8	동성애는 병으로 간주해야 한다					
9	자위행위로 긴장을 해소하는 일은 건강한 행위이다					
10	여성은 결혼 전 성경험이 있어야 만 한다					
11	낙태는 살인이다					
12	동성애는 혐오스럽다					
13	남성은 결혼 전 성경험이 있어야 만 한다					
14	낙태는 어머니가 원한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15	자위행위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장려되어야 한다					
16	동성애는 성인 사이에서는 괜찮다					

## 성태도 질문

아래의 질문들은 성행동에 관한 여러분의 경험 여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문항에 대답해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이성과 키스나 포옹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_\_\_\_\_있다 2) \_\_\_\_\_없다

1-a. 있다면 최초로 키스나 포옹을 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만 \_\_\_\_\_세

2. 귀하께서는 자위행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_\_\_\_\_있다 2) \_\_\_\_\_없다

2-a. 있다면 최초로 경험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만 \_\_\_\_\_세

3. 귀하께서는 동성 간의 성교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_\_\_\_\_있다 2) \_\_\_\_\_없다

3-a. 있다면 최초로 경험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만 \_\_\_\_\_세

4. 귀하께서는 이성과 성교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1) \_\_\_\_\_있다 2) \_\_\_\_\_없다

4-a. 있다면, 최초의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만 \_\_\_\_\_세

5. 귀하의 성교 상대는 현재까지 몇 명이었습니까? \_\_\_\_\_명

6. 귀하께서 사귄 상대자가 당신과의 성교결과로서 낙태를 한 적이 있습니까?

1) \_\_\_\_\_있다    2) \_\_\_\_\_없다

6-a. 있다면, 당신이 낙태를 경험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만 \_\_\_\_\_세

7. 귀하께서는 성교 시 콘돔을 사용하십니까?

1) \_\_\_\_\_사용함    2) \_\_\_\_\_사용안함

8. 귀하께서는 성병에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1) \_\_\_\_\_있다    2) \_\_\_\_\_없다

- ABSTRACT-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Attitude among Soldiers  
- Focused on Republic of Korea Army and United States  
Army Personal Stationed in Korea -**

Jang, Eun H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ng So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review the current sexual situation of Korean youth an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on sexual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Korea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by inspecting and comparing the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Republic of Korea (ROK)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Army Soldiers.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3, 2005 to August 3, 2005. I collected data using questionnaires from 165 traveling ROK soldiers at two train stations and three bus terminals in S city, and from 165 USA soldiers working at army camp in P and D city.

I used existing research tools for sexual attitude (Valois et al. 1980) and for sexual behavior (Hwi Sook Jang, 1995). Real number, percentile, mean, t-test, ANOVA, and  $\chi^2$  - test were calculated

using a statistical program, SPSS/WIN 11.5 .

These results are the same as following.

- 1) Sexual attitude scores (mean $\pm$ SD), 1 to 5 scale, with higher number indicating increasing acceptability are as follows. ROK soldiers were 3.02 $\pm$ .53(masturbation), 4.01 $\pm$ .71(contraception), 3.01 $\pm$ .74(premarital coitus), 2.55 $\pm$ .77(artificial abortion), and 2.40 $\pm$ .82(homosexuality), respectively, while those of USA soldiers were 3.53 $\pm$ .66(masturbation), 4.15 $\pm$ .70(contraception), 3.66 $\pm$ .85(premarital coitus), 2.84 $\pm$ 1.08(artificial abortion), and 3.03 $\pm$ 1.01(homosexuality), respectively.
  
- 2) ROK soldiers experienced 123(78.3%); kissing and hugging, 132(84.1%); masturbation, 3(1.9%); homosexuality, and 93(59.2%); premarital coitus, respectively, USA soldiers experienced 134(89.3%); kissing and hugging, 145(96.7%); masturbation, 5(3.3%); homosexuality, and 132(88.0%); premarital coitus, respectively. 18(19.0%) and 15(11.0%) of ROK and USA soldiers, respectively, experienced artificial abortion of partner due to premarital coitus.
  
- 3) Mean age for first kissing and hugging was 17.1 and 12.7 for ROK and USA soldiers, respectively, to show the 4.4 years difference. Mean age for first masturbation was 15.2 and 12.9 for ROK and USA soldiers, respectively, to show the 2.3 years

difference. Mean age for first sexual intercourse was 17.8 and 15.2 for ROK and USA soldiers, respectively, to indicate that USA soldiers experienced first sexual intercourse 2.6 year earlier than ROK soldiers. First experience of homosexuality was 19 and 8 year old for ROK and USA soldiers, respectively, while first experience in artificial abortion of partner due to premarital coitus was 17 and 15 year old for ROK and USA soldiers, respectively.

- 4) Number of premarital coitus partners was most frequent in 5-10 in both ROK (28 people, 30.1%) and USA soldiers (45 people, 34.1%). 39 ROK soldiers (42.0%) and 94 USA soldiers (71.2%) had more than 5 premarital coitus partners.
- 5) USA soldiers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sexual attitude in masturbation ( $t=7.32, p=.000$ ), premarital coitus ( $t=7.17, p=.000$ ), artificial abortion ( $t=2.71, p=.007$ ), and homosexuality ( $t=5.90, p=.000$ ).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traception between ROK and USA soldiers ( $t=1.69, p=.090$ ).

USA soldie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experience rate in kissing and hugging ( $\chi^2=6.795, p=.009$ ), masturbation ( $\chi^2=13.791, p=.000$ ), and premarital coitus ( $\chi^2=32.422, p=.000$ ).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omosexuality experience rate between the two groups ( $\chi^2=.612, p=.493$ ).

First experience in kissing and hugging ( $\chi^2=117.609$ ,  $p=.000$ ), masturbation ( $\chi^2=50.018$ ,  $p=.000$ ), and premarital coitus ( $\chi^2=57.574$ ,  $p=.000$ ) were significantly earlier for USA soldiers than ROK soldiers. USA soldiers had significantly ( $\chi^2=29.927$ ,  $p=.000$ ) more sex partners than ROK soldiers had.

- 6) ROK soldiers with less education were more acceptable to premarital sex ( $t=2.45$ ,  $p=.015$ ). USA soldiers without religion showed significantly ( $t=-3.24$ ,  $p=.001$ ) more positive attitude of premarital sex than USA soldiers with relig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itude and experience about premarital sex between army ranks in both ROK and USA soldiers. There was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xperience of artificial abortion by religion.